

# JRME(1991년~2000년) 논문 경향에 대한 소고

김 미 숙\*

## 차 례

- I. 서론
- II. 본론
  - 1. JRME의 소개
  - 2. 분류 기준 및 방법
  - 3. JRME의 논문 분석 내용
  - 4. 분석 결과 및 토론
- III. 결론

## I. 서론

21세기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로 표방되고 있다. '정보의 바다'라 불리며 지구 전체를 순식간에 하나로 연결하여 세계화의 기수 역할을 하는 인터넷의 범람 속에서 인간들은 정보의 홍수에 처해 있다. 음악교육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를 통해 양산된 문헌 자료로 인하여 실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신속하게 찾는다는 것은 힘든 작업이다.

19세기까지 음악의 중심지였던 유럽을 미국이 교육개혁에 의한 부단한 노력으로 20세기에 전 세계의 음악교육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유럽의 음악교육을 역으로 이끌어왔다. 그러므로, 한국 음악교육 연구 경향을 논하기에 앞서 미국의 음악교육 연구를 조망해 보는 것도 한국의 음악교육 연구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구란 새로운 지식을

\*상명대학교 겸임교수

추구하기 위해 실체와 진리를 찾는 작업이며 연구의 시행과 사용은 음악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들이다.

미국의 음악학술전문지인 「음악교육연구지(JRME :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는 음악교육학계에서 대표적인 논문집이다. 1993년 한 연구(Schmidt and Zdzinski, 1993)에서 음악관련 학술전문지에 발표된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조사한 결과 26편의 논문 중 19편의 논문이 JRME에서 발표된 논문이었다.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24번 언급된 것이었고 선정된 26편의 논문들은 최소 12번에서 24번 인용된 논문들이다.

연구에 포함된 음악교육학 관련 학술전문지는 JRME를 비롯하여 「음악교육연구 심의회 학회지(Bulletin of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음악 심리학(Psychology of Music)」, 「음악치료지(Journal of Music Therapy)」, 「음악교육에의 기여(Contributions to Music Education)」과 「미조리 음악교육연구지(Missouri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등 6개 연구지이며, 이 연구지 등은 음악교육학 연구 분야의 주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비록 1975년부터 1990년까지 922편의 기술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만 제한적으로 조사되었고, 위에 열거한 학술전문지 이 외에도 다수의 중요한 음악관련 논문집이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대로 가장 자주 인용된 논문, 26편중 2/3 이상을 차지한 논문이 JRME를 통해 발표된 논문이라는 사실은 JRME가 미국의 음악교육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단편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음악교육 연구자들에게 JRME에서 발표된 논문들의 연구 경향에 대한 올바르게 체계적인 정보를 주어서 한국의 음악교육에 관한 논제의 선정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최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년대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Ⅱ. 본 론

### 1. JRME의 소개

JRME는 1953년 전국음악교육자 회의(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 MENC)의 음악교육연구학회(Society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에 의해 봄호로 창간되었으며 50년

가까이 동안 100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처음 발행된 이래로 계간지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1권씩, 1년에 4번 발행되고 있다.

작년에 연구된 주해서 관련 논문(Price and Chang, 2000)에서 전세계의 음악교육학관련 학술 논문집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25개의 학술지 가운데 JRME가 가장 먼저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1953). 가장 오래되었고 역사와 전통이 깊은 JRME는 그 연륜만큼이나 논문의 양과 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술지는 음악교육전문 잡지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내용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 연구 방법으로 음악교육학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음악교육학계의 저명한 학자들이 이 학술지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학교에서 교편활동을 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저자로 괄목할만한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JRME의 창간은 195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실험적 연구는 20세기 초반에는 거의 음악 심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에 의해 새로운 교수법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연구를 시작했기보다는 대학원의 영향 때문에 연구분야(research)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박사 학위를 위해서는 논문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위한 음악교육에서의 연구 문헌이 1950년 초에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52년 미시간 대학의 브리튼(Allen P. Britton)은 음악교육의 연구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간행물에 대한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브리튼은 학술지를 주관 할 수 있도록 MENC에 청원하기 위해서 프리먼(Warren S. Freeman)을 합류시켰다. MENC는 호의적으로 답변하였고 새로운 「음악교육연구지」를 위한 목적과 운영의 상세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프리먼은 JRME의 창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JRME의 7가지의 기능을 서술하였다.

1. 음악교육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신수단을 제공하기.
2. 연구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기.
3. 연구기법을 다듬고 발달시키기 위한 도움주기.
4. MENC에 실제적인 정보를 보급하기.
5. 대학원에서의 음악교육 연구 기준을 개선하기.
6. 음악교육에서의 상업적·제도적 흥미의 영향을 벗어나서 사고와 아이디어의 독립적인 표현을 제공하기.
7. 음악교육의 학문적 명성과 긍지를 증가시키기.( Grashel and Leblanc, 1998)

JRME는 연구를 원하는 음악교육자들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만한 양의 논문들을 간행하고 있다. 일반적 연구 분야는 연구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JRME는 논문과 연구 방법론의 비평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연구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현장에서 적용하여 연구한 논문만을 소개하고 있다.

이 학술지에 논문이 수록되기 위해서는 MENC 음악교육연구학회의 집행부와 편집위원회의 승인 및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음악교육 각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이나, 두각을 나타내 보인 것 또는 전문성이 돋보이는 것과 음악의 효과에, 또는 음악학습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포함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많은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추출해야 한다. JRME에서 발표된 논문은 개인보다는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반복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현상을 연구하고 개념을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여러 부류의 집단에 적용시킬 수 있다.

논문의 선정 과정도 투명한데 1년에 80편 가량의 논문이 제출되면 심사를 거쳐서 35% 정도의 논문만이 4회에 걸쳐서 수록되고 있다. 심사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논문 제출자가 무기명인 채로 논문이 보내지며 심사위원은 심사 후 심사평과 함께 편집위원회로 다시 보내게 된다.

MENC의 음악교육연구학회는 음악교육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나 연구자들의 학문적 자질과 보다 나은 연구 결과를 위해 격려하고 있으며 음악교수학습에 관련된 연구물은 전부 접수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2. 분류 기준 및 방법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기간을 한정해 놓고 조사하는 것은 요약의 기능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경향을 나타내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 또는 여태까지 빈번하게 연구되어진 분야의 흥미 감소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의 대두를 살펴보기 위한 학술적인 음악교육관련 연구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관을 제공하기도 한다(Grant and Norris, 1998).

다음의 표는 분석에 사용된 JRME를 논문 수, 총 쪽수, 한편 당 평균 쪽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JRME의 1991년부터 2000까지, 통권 39부터 48까지 이다. JRME는 계간지이기 때문에 각 권은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로 나누어지며 연도별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1세기, 2001년을 맞이하면서 과거 10년 동안의 JRME의 논문 연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2001년 발행된 통권 49의 봄호는 제외하였다. 분석은 한국의 음악교육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세 분야로 나누었다. 각 논문들의 장르별 분류를 통해 연구 경향을 밝혀서 한국의 음악교육 논문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0년 동안에 300여 편 가량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분석에서는 순수한 연구 논문만 포함시

켰고 명예학자 수여식에서 발표한 연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연도별 논문 수와 쪽수

| 년도  | 논문 수 |     |     |     | 전체<br>논문 수 | 총 쪽수 | 한편 당<br>평균 쪽수 |
|-----|------|-----|-----|-----|------------|------|---------------|
|     | 봄호   | 여름호 | 가을호 | 겨울호 |            |      |               |
| 91년 | 7    | 8   | 7   | 6   | 28         | 304  | 11            |
| 92년 | 6    | 7   | 6   | 6   | 25         | 291  | 12            |
| 93년 | 5    | 4   | 5   | 5   | 19         | 266  | 14            |
| 94년 | 7    | 5   | 4   | 5   | 21         | 296  | 14            |
| 95년 | 5    | 5   | 6   | 5   | 21         | 303  | 14            |
| 96년 | 7    | 4   | 6   | 7   | 24         | 330  | 14            |
| 97년 | 10   | 12  | 12  | 11  | 45         | 620  | 14            |
| 98년 | 12   | 11  | 9   | 8   | 40         | 504  | 13            |
| 99년 | 7    | 7   | 6   | 6   | 26         | 329  | 13            |
| 00년 | 7    | 6   | 5   | 5   | 23         | 307  | 13            |

40호 통권 10권으로 10년 동안 발표된 전체 논문 수는 272편이다. 총 쪽수는 3550쪽이고 한편 당 평균 쪽수는 13쪽이다. 한해 평균 논문 수는 27편이지만 97년도와 98년도를 제외해보면 전체 논문 수는 187편이며 한해 평균 논문 수는 23편이다. JRME에서는 매년 23편 내외를 고정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96년까지 매년 30편 미만의 논문을 수록해 오던 JRME에서 97년도에는 2배 가량인 40편 이상을 수록하고 있다. 그후 99년도에는 다시 30편 미만으로 되돌아왔으며 계속 논문 수에서는 과거의 편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당 평균 쪽수에 있어서도 91년도에는 한편 당 평균 쪽수가 11쪽으로 가장 짧은 논문길이를 기록하였는데 점차 많아지면서 97년까지는 14쪽 정도를 유지하다가 다시 98년부터 현재까지는 13쪽 정도의 논문 길이를 유지하고 있다. 논문 수는 93년도가 제일 적은 양의 논문인 19편을 수록하였고 반대로 97년도에는 2.5배에 달하는 45편을 수록하고 있다.

### 3. JRME의 논문 분석 내용

#### 1) 연구 방법

JRME의 초기 목적은 '음악교육과 관련된 모든 연구 논문들을 출판하는 것'이었다. 오랜 기

간 동안에 많은 논문들이 역사적 또는 기술적 연구 방법에 의해 연구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실험적 연구 방법의 가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1970년에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실험적 방법이나 기술적 방법에 의해 연구되어졌다. 1980년대에는 실험적, 기술적, 역사적 연구 보고서들 가운데서 '음악교육 이론에 명백한 공헌을 한 연구 결과'만 실릴 수 있게 되었다(Mark, 1992).

<표 2>에서는 연구 방법을 기술적 연구, 실험적 연구, 역사적 연구, 철학적 연구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JRME가 전적으로 1980년대까지 철학적 연구를 제외한 3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새로운 변화로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음악교육의 목적을 규명하는 철학이나 미학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철학적 방법이 추가되었는데, 음악교육 연구에 있어서는 4가지 연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Abeles, Hoffer and Klotman, 1984).

<표 2> 연구 방법별 분석

| 연도 \ 방법 | 기술적    | 역사적   | 실험적    | 철학적    |
|---------|--------|-------|--------|--------|
| 91년     | 15     | 2     | 9      | 2      |
| 92년     | 10     | 3     | 11     | 1      |
| 93년     | 7      | 3     | 6      | 3      |
| 94년     | 8      | 2     | 9      | 2      |
| 95년     | 13     | 2     | 5      | 1      |
| 96년     | 15     | 1     | 8      | 0      |
| 97년     | 19     | 4     | 14     | 8      |
| 98년     | 18     | 2     | 12     | 8      |
| 99년     | 17     | 2     | 4      | 3      |
| 00년     | 13     | 3     | 6      | 1      |
| 계       | 135    | 24    | 84     | 29     |
| 100 %   | 49.6 % | 8.8 % | 30.9 % | 10.7 %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술적 연구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49.6%로 과거 50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추가되어졌던 실험적 연구도 30.9%를 차지하였다. 기술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가 많은 이유는 논문의 주제 경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19편(기술적 연구 135편과 실험적 연구 84편)의 논문 중에서 음악적 요소 또는 음악의 제 요인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을 검증하는 논문이 76편이나 되었다. 특정 대상이나 행동·방법과 음악 요인과의 비교 또는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논문도 27편이었으며 각 집단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연구 또한 22편이나 되었다. 이 외에도 음악학습심리에서 지각과 반응을 연구한 논문도 각각 20편과 11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논문의 주제가 효과 검증이나 선호도 조사, 지각과 반응의 형태나 관계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 연구 방법이나 실험적 연구 방법이 사용된 것은 필연적이다.

그 동안 꾸준히 사용되어졌던 역사적 연구 방법이 실험적 연구 방법의 대두로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8.8%에 머물렀다. 이것은 철학적 연구 방법보다도 적은 수치로 JRME의 연구 방향의 변화를 보여준다. 연구 방향의 전환을 초래한 이유는 새로운 학술지의 등장으로 인하여 JRME에서 추구하는 연구 방법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역사적 연구 방법의 감소는 1980년에 MENC의 역사 분야 연구 그룹에 의해 창간된 「역사적 방법에 의한 음악교육 연구 학회지(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에 기인한다. 이 학회지는 음악교육 역사학자들의 교류 공간으로, 음악교육사 부문의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장으로, 그리고 음악교육사학자들의 자료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학회지에는 '철학적, 역사적 방법에 의한 음악교육 연구'들이 발표된다(Mark, 1992). 그러므로 같은 MENC 산하에 역사적 연구 방법에 의한 학술논문집이 있으므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자연적으로 JRME에서는 기술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 방법에 주력하게 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철학적 연구 방법도 10.7%를 나타내었는데 음악교육에 대한 견해나 교육과정 에 대한 생각을 연구 과제로 삼는 경향으로 인해 이러한 연구 방법이 사용되어졌다. 미학적 반응이나 정의적 태도의 연구 또는 가치화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고 철학이나 신념에 대한 연구도 행해지고 있다.

##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의 분석에서는 적용 대상을 유아, 초등, 중등, 대학, 일반, 교사, 특수, 기타로 분류하여 도표화하였다. 그러나 272편의 논문 중 하나의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28편 이었고, 2개 집단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4편이었으며 3개 집단 이상을 연구한 논문 이 8편이어서 표에는 중복해서 표시하였다. 특수아의 경우, 특수 아동만을 위한 논문은 1편 뿐이었고 대부분 일반 아동과 같이 연구되어졌거나 음악치료의 경우라서 해당 집단에 포함 시켰다.

<표 3>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초등학교와 대학교가 각각 24.0%, 78편, 23.7%, 77편으로 논문

1편 차이만 보이고 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이었다. 중등학교는 18.2%, 일반이 13.2%이었으며, 교사도 10.5%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유아 수준에서는 4.9%인 16편의 연구만 행해졌고 특수아의 경우는 1편인데, 다른 여러 집단과 같이 연구되어진 것을 감안하면 11편이 특수 아동과 관련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표 3> 연구 대상별 분석

| 연도 \ 대상 | 유아    | 초등     | 중등     | 대학     | 일반     | 교사     | 특수    | 기타    |
|---------|-------|--------|--------|--------|--------|--------|-------|-------|
| 91년     | 2     | 7      | 6      | 10     | 4      | 4      |       | 1     |
| 92년     | 2     | 9      | 5      | 10     |        | 1      |       | 3     |
| 93년     | 1     | 3      | 4      | 5      | 6      | 3      |       |       |
| 94년     | 2     | 7      | 6      | 7      | 1      | 4      | 1     |       |
| 95년     |       | 4      | 4      | 6      | 2      | 2      |       | 3     |
| 96년     | 2     | 5      | 4      | 7      | 5      | 4      |       | 2     |
| 97년     | 2     | 13     | 15     | 8      | 12     | 5      |       | 1     |
| 98년     | 4     | 17     | 8      | 8      | 6      | 3      |       | 2     |
| 99년     |       | 6      | 3      | 9      | 3      | 6      |       | 2     |
| 00년     | 1     | 7      | 4      | 7      | 4      | 2      |       | 3     |
| 계       | 16    | 78     | 59     | 77     | 43     | 34     | 1     | 17    |
| 100 %   | 4.9 % | 24.0 % | 18.2 % | 23.7 % | 13.2 % | 10.5 % | 0.3 % | 5.2 % |

어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이 17편이 있는데 이는 일반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보다는 별도로 다루어지는 것이 분석에 적합할 것 같다. 기타에 포함된 논문은 대부분 음악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역사적인 인물이나 음악교육 연구 분야의 발달을 가져온 학술지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특히하게 학부모 대상의 연구가 1편 있었고, 군악학교 소개 1편과 예술교육의 법적 이슈를 다룬 논문이 1편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는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일반 대상의 경우는 92년을 제외하고는 1편에서 6편으로 매년 연구되어지고 있었고 97년에 논문 수가 2배 이상 증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2편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도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며 특이할 만한 것은 대학 교수를 상대로 연구되어진 논문도 2편 있었다.

### 3) 연구 영역

각 논문을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왜냐하면 어느 한 영역에 확실하게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하나 이상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JRME의 논문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음악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힘들고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영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다음의 분류는 주제 경향을 분석한 것이고 많은 순서로 백분율에 의해 제시한 것이다. 제목 보다는 주제 내용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제목의 논문이지만 논문 분류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표 4>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교수-학습(32.4%)이 가장 많이 연구되어졌다. 그 다음으로 음악학습심리가 26.1%를 차지하였으며, 교사교육과 교재/교구가 각각 11.7%, 10.7%로 연구되었다. 교육과정(5.1%)과 특수교육(4.0%)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미미한 영역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교과교육원론 영역이며 272편의 논문 중 7편만 연구되었을 뿐이다.

일반음악이론/음악사 영역은 음악양식과 음악교육사 관련 논문을 포함시켜서 분석하였으며 7.4%를 나타내었다. 교재/교구 영역에서는 수업자료의 검증이나 실험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8 영역 중 4번째를 차지하게 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된 교수-학습 영역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0년에는 23편의 논문 중 과반수 이상인 13편이 연구되었다. 음악학습심리 영역도 많이 연구되는 영역인데 9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사교육 영역과 교재/교구 영역은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도 매년 한두 편씩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특수교육 영역은 매년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99년부터는 소원한 상태이다.

&lt;표 4&gt; 연구 영역별 분석

| 연도 \ 영역 | 교수-학습  | 음악학습<br>심리 | 교과<br>교육원론 | 교사 교육  | 교재/교구  | 교육 과정 | 특수 교육 | 일반음악<br>이론 |
|---------|--------|------------|------------|--------|--------|-------|-------|------------|
| 91년     | 7      | 8          | 2          | 3      | 4      | 2     | 2     |            |
| 92년     | 4      | 7          | 3          | 3      | 3      | 2     |       | 3          |
| 93년     | 3      | 4          |            | 3      | 4      | 1     | 1     | 3          |
| 94년     | 8      | 7          |            | 1      | 2      | 1     | 1     | 1          |
| 95년     | 6      | 4          | 1          | 5      | 2      | 1     |       | 2          |
| 96년     | 5      | 6          |            | 3      | 5      | 1     | 2     | 2          |
| 97년     | 13     | 15         |            | 6      | 4      | 1     | 4     | 2          |
| 98년     | 20     | 11         | 1          | 2      | 2      | 2     | 1     | 1          |
| 99년     | 9      | 6          |            | 5      | 2      | 2     |       | 2          |
| 00년     | 13     | 3          |            | 1      | 1      | 1     |       | 4          |
| 계       | 88     | 71         | 7          | 32     | 29     | 14    | 11    | 20         |
| 100 %   | 32.4 % | 26.1 %     | 2.6 %      | 11.7 % | 10.7 % | 5.1 % | 4.0 % | 7.4 %      |

교과교육원론의 경우는 JRME의 특성상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증적·실험적 조사 연구가 대부분인 JRME에서 교육 이론을 연구하는 문헌 중심의 연구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수-학습과 음악학습심리 영역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제로 가장 많이 연구되어 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눌 수도 있지만 연구 방법에서 이미 주제 경향(효과상관관계, 선호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므로 이 연구 영역에서는 세부 영역으로 분류해서 분석하지 않았다.

#### 4) 연구 영역별 대상

연구 영역별 적용 대상을 보면, 유아,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일반이 모두 교수-학습과 음악학습심리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대상에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특정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교재/교구와 교육과정 영역에서도 모든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되어졌다. 그러나 음악교육사, 교육원론과 특수교육 영역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혀 없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모든 대상을 포함해야 하겠지만 음악에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대부분의 영역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면 음악적성의 성장이 멈춘 후에 효과적인 교수법을 사용한다 해도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lt;표 5&gt; 연구 영역별 대상

| 대상 \ 영역 | 유아 | 초등 | 중등 | 대학 | 일반 | 교사 | 특수 | 기타 |
|---------|----|----|----|----|----|----|----|----|
| 교수학습    | 6  | 31 | 20 | 24 | 13 | 3  |    |    |
| 학습심리    | 6  | 27 | 23 | 23 | 10 | 1  |    | 1  |
| 교육원론    |    | 1  | 1  | 1  | 1  |    |    | 4  |
| 교사교육    |    | 1  | 2  | 13 |    | 20 |    |    |
| 교재교구    | 3  | 11 | 5  | 8  | 5  | 3  |    |    |
| 교육과정    | 1  | 2  | 4  | 3  | 3  | 3  |    | 1  |
| 특수교육    |    | 4  | 4  | 3  | 3  | 2  | 1  |    |
| 음악이론    |    | 1  |    | 1  | 5  | 2  |    | 11 |
| 계       | 16 | 78 | 59 | 77 | 43 | 1  | 34 | 17 |

교사교육 영역이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도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예비 교사를 위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증거이다. 현장교사를 위한 재교육 차원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현장에서 수업을 해야 할 예비 교사들에게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여러 가지 음악적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분석 결과 및 토론

##### 1) 연구 방법에 대한 토론

연구 방법에서는 기술적 연구가 절반 가량(49.6%)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험적 연구도 30.9%를 나타내는데 비해서 과거에 주류를 이루던 역사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서 8.8%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학에 중점을 둔 연구나 이론적·철학적 견해를 반영하는 교육과정 연구를 하는 철학적 연구도 10.7%를 차지하여 명맥을 유지하면서 JRME는 4영역 모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음악교육 연구 방법도 어느 한 방법에 치우치지 않고 연구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연구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논문 주제의 다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음악의 제요소와 제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세분화하여서 음악에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확인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주제 선정의 폭을 확대하고 다면적으로 주제에 접근했을 때 연구 방법의 다양화가 모색되어질 수 있다.

JRME에서 사용되어진 연구 방법의 대다수는 조사기법, 상관관계 연구, 실험적 환경조성이 다. 극소수의 민족지학적 또는 질적 연구 방법을 한 연구도 있어서 앞으로 연구 방향을 예견하고 있다. 세분화 된 학술논문집의 발간으로 연구 방법이 어느 한 방법으로 한정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JRME는 이 학술지의 특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의 안배를 고려하면서 JRME가 주력하고자 하는 연구를 적절하게 발표하고 있다.

## 2) 연구 대상에 대한 토론

연구 대상에 있어서 한국의 음악교육 연구 경향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일반과 초등학교 대상의 연구가 월등하게 많았다(최은식, 2000). 그러나 JRME의 경우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중등학교, 교사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서 여러 대상을 상대로 연구되었다.

JRME에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탐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수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한국의 음악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여러 음악가나 음악학자, 음악교육학자가 많은데,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음악에 관련된 위인들을 발굴하고 소개한다면, 논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돌파구나 가능성을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대상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에 비해서 JRME에서는 교사 대상의 연구가 10.5%나 되었다.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교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교육이나 교사 재교육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고 JRME의 경우처럼 예비 교사를 교육시키는 대학 교수 대상의 연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JRME에서도 극히 미미하게 연구되어졌지만, 장애 아동의 인식이 선진국답지 못한 한국의 실정에서는 특수아에 대한 연구, 특히 음악에서의 특수아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 음악 특성의 뛰어난 가치를 고려해 볼 때 특수아에게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음악교육학자들이 이제 특수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유아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 JRME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조기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교육 실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JRME는 다른 여러 대상에 비해 유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의 논문을 발표하기는 하지만 95년과 99년을 제외하고는 한두 편씩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대부분의 유아 관련 논문이 유아 집단 단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초등학교와 함께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경우처럼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별개의 과정으로 취급되지 않고 연계되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나타낸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롭

게 초등학교를 시작한다는 개념보다는 유치원 때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K-6)는 개념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음악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의 음악 수업의 효율성에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 3) 연구 영역에 대한 토론

연구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의 음악교육 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연구영역 중 교수-학습 영역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였는데 JRME도 물론 많은 수이기는 하지만 1/3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큰 비중을 차지한 교과교육원론 영역이 JRME에서는 가장 적은 비중(2.6%)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연구 방법에서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헌 연구가 대부분인(77%) 한국의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 중심으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최은식, 2000).

JRME는 음악학습심리 영역의 연구가 돋보이는데 이는 실험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가 대부분인 연구 방법에 기인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음악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과 그 효율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JRME에서는 교재/교구 영역의 논문도 매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교재의 개발과 편리하고 실용적인 교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사 영역도 JRME에서와 같이 한국의 특성에 맞는 연구가 요구된다. 서양음악이 한국에 들어 온 역사가 100년이 넘지만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국에서의 음악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어져 내려왔는지 어느 영역에서 가장 많이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음악교육학자가 체계적으로 또한 학문적으로 연구하여서 한국의 음악교육에 대한 정신적 지주가 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겠다. 한국음악의 특성상 구전으로, 실기 위주로 교육되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고 할 만한 역사적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음악교육사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JRME에서는 어느 특정 영역에 대해서 한 연구자가 연속해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한다. 프라이스(Harry E. Price)의 경우는 음정 조합(Interval Matching)에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서 마침내 2000년 겨울호에는 그의 6번째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Price, 2000).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음악교육학자들의 전문화에 노력해야 한다. 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깊이와 폭을 넓혀간다면 앞으로 개설될 음악교육학 박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와 영역을 세부전공으로 택할 수 있게 되며 학자들 역시 음

악교육 영역 중에서도 특정 방면의 전문가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JRME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음악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답습하지 말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요하는 유아시기에 충분한 음악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 및 음악교육 연구자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서 상급학교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음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깨닫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교 수준의 예비 교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JRME에 비해 예비 교사를 위한 교육제도가 미비한 한국에서는 형식적인 교육과정에 의해서 제한된 지식만을 습득한 채 음악교사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교수 방법과 교육과정에 의한 음악교육, 대학에서의 교사교육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 4) 음악교육 연구에 대한 토론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명예학자 수여식의 연설문 또한 음악교육 논문의 수준으로 학자들이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MENC의 음악교육연구학회에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특별 회기에 수여하는 이 상은 1988년에 시작되었다. 명예학자의 자격은 15년 이상 계속해서 연구 출판물을 출판한 학자,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음악교수학습에 영향을 준 연구자, 음악학습 또는 음악에 대한 인간의 반응 과정의 이해를 위한 명확한 암시를 한 학자 등이다.

지속적으로 연구를 창조해 나가고 음악교육학계에서 현재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자만이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 음악교육의 역사를 비추어 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음악교육 연구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학회 차원에서 상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 기대해 본다.

비록 어떤 주제는 너무 시야를 좁혀서 어떤 특정 영역에만 집중을 하고 좀 더 세분화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한국의 음악교육 연구도 관례적으로 적은 내용의 연구물만을 가지고 연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어느 방법을 이용하던지 좀 더 세련된 수준으로 연구 패턴을 구성해야 하겠다.

음악교육 관련자들도 단지 음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연구자, 학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한다.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실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 요인들을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실험하고 연구했을 때 그 연구 결과가 음악교육 분야의 지식을 넓혀 주고 모든 음악교육학계에 긍정적으로 공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음악교육 연구에 대한 연구의 질적 향상은 학위 논문을 쓰고자 하는 음악교육 전공생들을 지도하는 음악교육학자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의 학생들에게 연구가치가 있는 논제의 선정과 그

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제대로 선택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음악교육자들도 계속해서 음악교육 관련 연구물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생산해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

### Ⅲ. 결 론

디지털 통신수단의 발달로 음악교육자들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다. 연구의 세계화가 필요한 이 때에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학술논문집의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JRME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도 뜻 깊은 일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JRME의 논문 분석을 통해서 연구 경향을 알아보고 한국의 음악교육 연구의 방향과 논제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JRME는 연구 논문 수에 있어서나 다양한 논문 주제로 볼 때 음악교육학계에서 대표적인 학술지라 할 수 있다. 이 학술지는 음악교육학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제를 다루어 그 해결점을 제시해 주었으며 음악교육의 이론적인 이해를 위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음악교육 분야에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서 문헌 정보 자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잘 간행되고 있는 학술논문집 중 하나인 JRME는 대부분의 음악교육학자들이 논문 연구 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참고 문헌에 필수적인 목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JRME의 연구 경향만을 도표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서술하였지만 272편의 논문을 직접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이 문헌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래의 음악교육학 연구자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음악교육학계에서의 연구 활동도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또한 논제 선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학원 음악교육전공 학생들이나 더 나은 환경 조성과 더 효율적인 교수학습과정을 연구하는 현장교사들에게 유용한 문헌자료로서의 역할과 음악교육학계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 또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성경희. 음악과교육론. 서울 : 갑을출판사, 1988.
- 이홍수.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0.
- 최은식. 21세기 한국 음악 교과교육 연구의 과제와 전망. 한국음악교육학회 2000년 제 2분기 연구 발표 자료, 2000.
- Abeles, H. C. Hoffer, & R. Klotman. Foundations of Music Education. Schirmer Books, 1984.
- Grant, W. Joe & Charles Norris. "Choral Music Education: A Survey of Research 1982-1995." *Bulletin of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5, 21-51, 1998.
- Grashel, John. "Women in Journal in Music Education. Twenty Volumes of 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80-1999."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September 1998): 17-26. & Albert LeBlanc(1998). "The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 The First Three Decades." *Bulletin of Council for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38, 1-19, 1998.
- Heller, Steven K.(1998). "Time Flies When You're Havin' Fun: Twenty Volumes of 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980-1999."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September 1998): 1-16.
- Humphreys, Jere T. "The Bulletin of Historical in Music Education: Its Authors, Reviewers, and Editorial Committee Members for the First Twenty Years(1980-1999)."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May 1999): 171-180, 1999.
- Mark, Michael L. 현대의 음악교육. 이홍수, 임미경, 방금주, 김미숙, 장기범 공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92.
- McCarthy, Marie. "A Content Analysis of The Bulletin of Historical Reserch in Music Education, 1980-1990." *Bulletin of Historical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May 1999): 181-202, 1999.
- Phelps, Roger P. A Guide to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nd Ed. Metuchen, NJ & London : The Scarecrow Press, Inc, 1980.
- Price, Harry E. "Interval Matching by undergraduate Nonmusic Major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 360-372, 2000.

- 
- \_\_\_\_\_ & E. Christina Chang.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Music Education Research Journals." *Update: Applications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8(1), 19-26, 2000.
- Schmidt, P. Charles and Stephen F. Zozinski. "Cited Quantitative Research Articles in Music Education Research Journals, 1975-1990 : A Content Analysis of Selected Studi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 5-18, 1993.

## ABSTRACT

**The study on the trends of research in  
JRME(1991 – 2000)**

Kim, Mi Sook

This study has a purpose to present the direction and the topic on the future music education in Korea by giving correct and systematic information to the researchers in music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research in JRME(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JRME is a representative journal of the music education in the research field in the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of the various topics.

In order to study the trends of recent research, the papers for the analysis are the studies from 1991 to 2000.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 research methodology, subjects, research area. The papers presented in JRME for the last decade are 272.

For the methodology, the descriptive research takes up a half of the papers(49.6%) and the experimental research to 30.9%. The historical and the philosophical method are presented to 8.8% and 10.7% respectively.

For the subjects, the elementary(24%) and the college level(23.7%) are the most important among the research group. The research says the secondary school is 18.2%, general group 13.2% and teachers group 10.5%.

For the research area, teaching-learning is the most well studied and the next is psychology of music learning(26.1%). Teacher education and materials/tools areas are a little over 10%. The principle of the subject education which is the important research area of Korea in music education is merely 2.6%.

Compared to the music education research in Korea, in JRME, the secondary, the college level, and the teachers group as well as the elementary level are studied evenly and the various subjects are dealt with the study, though the research for the subjects in elementary level and the general group is a large portion of music education research in Korea. The

---

research area emphasizes on the psychology of the music learning in comparison with the concentration of the teaching-learning area in Korea. It is because the majority of research methodology is the descriptive and the experimental stud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ut into practice this kind of the methodology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and the factors for music learning.

I hope this study will inform the students who has difficulties in selecting the topics for their theses and the teachers who study the effective teaching-learning of the role of research sources.